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6월 9일(주일) 제1492호



사진은 지난해 마리아행전

마리아행전 '엎드림' 기도의 문을 열다

6월 12~13일 각 캠퍼스, 14일 양재 사랑홀
이재훈 목사, 이인호 목사, 이한영 부총장 설교

드디어 이번 주 마리아행전 '엎드림'이 막 오른다. 6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양재온누리교회와 각 캠퍼스에서 진행됐다. 6월 12일(수)과 13일(목) 서빙고와 양재 성도들은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캠퍼스 성도들은 소속 캠퍼스 본당에서 열

리는 집회에 참석하면 된다. 14일(금)에는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모든 캠퍼스가 함께 모여 연합기도회를 개최한다. 마리아행전 엎드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어진다. 12일과 13일에는 양재온누리교회 사랑

홀 집회 실황을 각 캠퍼스로 송출한다. 특히 이번 마리아행전 '엎드림'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눈물로 중보기도를 한다. 설교는 6월 12일 이재훈 위임목사 '용서의 엎드림', 13일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간구의 엎드림', 14일 이한영 부총장(아산대) '예배의 엎드림'을 주제로 한다. 마리아행전 '엎드림' 참가자들은

접수 신청한 캠퍼스로 출석하면 된다. 복장은 가급적 밝은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를 입어야 한다. 본당 입장은 9시 40분부터 가능하다. 등록 팔찌는 집회 기간 내내 착용해야 한다. 조호영 목사(여성사역본부장)는 "2024 마리아행전 '엎드림' 참가자들이 겸손하게 엎드려 나라와 민족, 다음세대를 위해 간절하고 뜨겁게

부르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리아행전은 2002년부터 시작됐다. 예수님을 증거했던 수많은 마리아들처럼, 이 시대 여성들도 예수를 밝히 드러내자는 취지의 여성기도 부흥운동이다. 문의: 서빙고(02-3215-3667, 3201) 양재(02-570-7277)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차세대 여름사역 시작!

6월 15일까지 교사 강습회, 7~8월 여름캠프 및 아웃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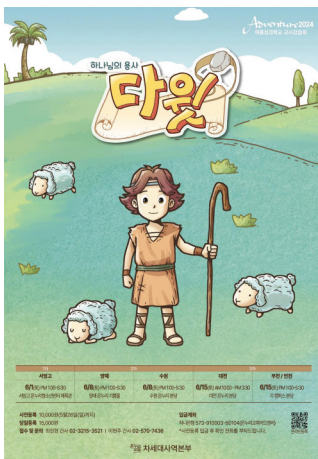
2024 차세대 여름사역이 시작됐다. 포문은 지난 6월 1일(토) 2024 차세대 어드벤처 교사강습회가 열렸다. 이번 교사 강습회는 '하나님의 용사, 다윗!'을 주제로 6월 15일(토)까지 이어진다. 6월 8일(토) 오후 1시 양재와 수원, 6월 15일(토) 오전 10시 대전, 오후 1시 부천과 인천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지난 6월 1일 온누리청소년센터에서 막 오른 1차 교사강습회에는 교사 및 목회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사강습회에서는 주제 강의 및 찬양 율동 강의, 교재 강습, 기도회 등을 했다.

차세대 여름캠프는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7월 6일부터 7월 21일까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7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파워웨이브(중고등부)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예꿈과 꿈땅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담아요', '말씀을 따라요'를 주제로 QT와 성경퀴즈, 적용 놀이와 체험활동 등을 한다. 파워웨이브는 '獨

對(독대)'를 주제로 찬양집회, 강의, 기도회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차세대 국내 외 여름 아웃리치 준비도 한창이다. 올해 차세대 아웃리치에는 39개 팀 775명(국내 13팀 307명, 해외 26팀 468명)이 참가할 예정이다(6월 6일 기준).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부천 유년부를 시작으로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열리는 수원 유년부 아웃리치까지 이어진다. / 홍하영 기자



통일위원회, 탈북 다큐멘터리 상영

6월 13일 서빙고 본당, 6월 18일 양재 사랑홀

통일위원회에서 탈북 다큐멘터리 '비온드 유토피아' (매들린 개빈 감독)를 6월 13일(목)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6월 18일(화)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상영한다. '비온드 유토피아'는 탈북민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폭로한 미국 다큐멘

터리 영화다. 거짓의 유토피아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실태, 그곳을 탈출하려는 일가족 5명의 위험한 여정, 헌신적인 사람들의 기도와 도움 등을 담았다.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10-5792-3290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6월 비전헌금, 대학청년부 여름 아웃리치 후원

6월 8~9일 봉헌하는 6월 비전헌금은 '대학청년부 여름 아웃리치'를 후원하는 데 사용한다.

올해 대학청년부 여름 아웃리치는 'Be Bold'를 주제로 7~8월 두 달 동안 이어진다. 국내 아웃리치 80개 지역 124개 팀 2,644명, 해외 아웃리치 25개국 57개 팀 943명이 복음을 들고 각 지역으로 흩어진다(6월 6일

기준). 국내팀은 서울, 경기, 인천, 충청남북도, 강원도 등지에서 군부대 위문, 마을 전도, 청소년 멘토링, 아랍인 수련회 등을, 해외팀은 네팔, 스리랑카, 튀르키예, 인도,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여름성경학교, 센터 보수, 마을 전도, 전도 집회, 노방전도, 난민 사역 등을 할 예정이다. / 홍하영 기자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이 부딪치는 여러 장벽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의 완고함이 장벽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장벽도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사명에 비해 일꾼이 부족한 것도 장벽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발견되는 또 하나의 장벽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입니다. 편견은 선입관이나 고정관념과 다릅니다. 선입관은 어떤 체험에 앞서 가지는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모든 선입관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잘못됐습니다. 고정관념은 한 문화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지식입니다. 어떤 고정관념은 잘못되었지만, 어떤 고정관념은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편견은 언제나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선입관, 잘못된 고정관념이 고착화될 때 균형을 잃고, 치우친 생각으로 언제나 그릇되는 것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에 빠지면 생각 없이 숙단해 버립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릴 때 그 결과가 편견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지 못하는 죄의 결과가 옛자아의 영향력으로 남아 편견으로 자리 잡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더 자유로워지고, 복음 안에서 더욱 풍성해야 하는데, 더 좁아지는 까닭은 편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편견, 세상에 대한 편견, 교회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제도나 문화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편견과 만나서 굳어지면 아무도 바꾸지 못하는 무서운 고집이 됩니다. 복음 안에서 풍요로운 자유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편견이 지배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상적 우상’이라는 편견

베드로에게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에게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택하셔서 오랫동안 함께 하였고, 그 민족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한 유대 민족이 가진 편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체험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사도행전> 역사에서 병자를 고치고,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소생케 하는 놀라운 표적으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증인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편견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편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백부장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과정에서 베드로의 편견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편견이 나타납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고급 장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가 욥바에 가까이 올 때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그가 배가 고파서 무엇인가 먹을 것이 없냐고 할 때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온갖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을 기어 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보자기 안에 있는 생물들은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레위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결한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니 먹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선언한 것을 네가 불결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랫동안 율법을 따라 살아온 유대인으로서 베드로의 대답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먹으라”고 명하시는 분이 그 율법을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이제 그 율법이 폐지되었음을 알리는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럴 수 없다고 막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신앙인의 편견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중요시하는 ‘사상적 우상’입니다. 유대인들이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구약의 하나님만 인정하는 사상적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 안에 있었기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이제는 자신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달았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에 함께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깜짝 놀랐다”, “깨달았다”, “이제야”, “참으로” 같은 깨달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편견이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날마다 편견이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자아의 영향력, 죄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온 편견이 하나씩 벗겨져야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도전

두 번째 편견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먼저 부르신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34-35절).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 민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부르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먼저 부름 받은 이들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편견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들은 분명 신앙인이었습니다(행 11:2-3). 그런데 편견에 사로잡힌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시험에 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갖고 있는 편견의 문제를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힘든 집단이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로군요’라고 말했습니다”(행 11:18).

정말 당연한 말을 너무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편견이 깨어지면서 사람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이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편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베드로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편애로 오해해서
선민의식에 빠지는 편견

세 번째 신앙인의 편견은 하나님의 선택을 편애로 오해해서 선민의식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

우리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40~42절). 예수님을 믿은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은 선택의 이유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에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하나님 선택의 목적이 성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온 세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통해 우리가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 모든 이들이 동일한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한 것에 놀라는 것을 시작으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방언과 찬양이 임하는 동일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44-47절). 편견이 심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으면 그 체험이 자신에게만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든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모든 이들이 복음으로 인해 성령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우리 안에 편견이 무너져 갈 때 하나님을 닮고, 그분의 마음을 닮고, 그분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을 자만과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무서운 편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무서운 편견입니다. 따라서 선교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편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편견이 모두 깨어져야 선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편견이 깨어졌듯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편견이 깨어집니다. 많은 나라와 민족을 경험한 사람들의 생각이 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자유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복음 안에 주어지는 풍성한 자유를 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편견이 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닮은 자녀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끊임없이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교육

한국의 C.S. 루이스를 꿈꾸며

필자가 13년 전 'SICA(서울 국제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된 것은 어릴 적 교회에서 받은 교육의 영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고등학생부터 교회에서 프란시스 웨퍼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접하는 교육을 받으며 기독교 세계관에 일찍이 노출되었다. 한국의 공교육을 거치고, 대학교수로 일하면서 아이들이 '대학 진학 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려워하는 것을 보았다. 또한 하나님과 세속을 분리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특히 교회 교육이 점점 더 이 변화에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느꼈다. 유학 생활을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이러한 나의 고민을 해결할 실마리로 '샬롯 메이슨 교육'과 '기독교 고전교육'을 발견했다. 어릴 때부터 신앙과 배움의 통합, 학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훈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자료를 모으고 '홈스쿨링'을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이 'SICA'라는 기독교 고전 교육 기관을 시작하도록 이끄셨다.

샬롯 메이슨은 100년 전 영국의 교육가로서 '교육은 분위기(atmosphere)다', '교육은 훈련(discipline)이다', '교육은 삶(life)이다'라는 모토를 말했다. 자연스러운 교육 분위기,

어릴 때부터의 습관 교육, 지적이고, 도덕적인 생각의 자양분을 줄 수 있는 교과과정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살아있는 책'이라는 개념은 분절된 교과서의 지식이 아니라 한 작가의 사랑과 열정이 담겨 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책을 어려서부터 자양분으로 줌으로써 배움에 대한 사랑을 일깨운다. C.S. 루이스가 <인간폐지>에서 말한 '가슴 없는 사랑'을 키우는 교육에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물을 키우는 꿈을 계속 끈다.”

이미 샬롯 메이슨이 그 문제에 대한 교육 대안을 제시했다. 샬롯 메이슨의 교육도 큰 틀에서는 기독교 고전교육이라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시작된 고전교육은 로마 시대를 거쳐 중세 시대까지 문명의 발전과 기독교를 교리화, 체계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7가지 리버럴아츠(7 Liberal Arts; 자유학예)라는 교육 방법은 르네상스 시대에 꽃을 피우고, 인류 역사에 엄청난 변혁과 개혁을 일으켰다. 언어 중심의 트리비움(문법, 논리, 수사)과 수 중심의 쿼드리비움(산수, 기하, 음악, 천문학)

으로 이루어진 교육으로 나와 이웃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리더를 만드는 교육이었다. 흔히 요즘 말하는 통합, 통섭 교육이 이미 옛날부터 존재했다. 이러한 배움의 도구들이 20세기에 들어오며 진보교육과 다원주의 사상과 맞물려 사라지게 되었다. 내가 느끼는 공교육과 대학 생활의 답답함, 그리고 학문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이유 중 하나다.

기독교 고전교육은 분절된 교육에서 다음세

대의 기독교 학교 학생들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고전교육의 우수성은 미국의 차터스쿨(대안학교의 성격을 가진 공립학교)로 이어지고 있어서 교육의 공공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는 일그러진 한국의 교육 생태계 가운데 바위에 달걀 치는 심정으로 'SICA'를 시작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나는 배움을 사랑하고,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물을 키우는 꿈을 계속 끈다.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전체의 5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 쓰나미 같은 '세속주의 가치관'이 우리를 덮고 있다. 이 가운데 기독교 고전교육이 현시대의 신앙 교육, 교회 교육, 학교 교육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한국에서도 C.S. 루이스와 같이 기독교를 일반 사람들에게 쉽게 변증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오기를 바란다. 각계각층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다음세대를 키우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경원 이사장
(SICA/KLAS)

특별기고

기억해야 할 솔제니친의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

졸업식 연설은 대개 쉽게 잊힌다. 하지만 46년 전(1978년 6월 8일) 하버드대학교에서 미국은 저명한 구소련의 반체제 인사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의 예언자적 목소리를 들었다. 솔제니친은 정치적으로 적당하고(PC) 널리 인정받는 사상에 거침없이 이의를 제기했고, 그로 인해 야유받았다. 그의 놀라운 연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의 말은 사실로 입증되었다. 사실 솔제니친의 연설은 당대보다 지금 더 시의적절하다. 왜 당시 청중들은 잔혹한 공산주의 독재 정권의 강제노동수용소를 제대로 봤고,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솔제니친 같은 도덕적 거인에게 야유를 보냈을까? 야유했던 이들은 그가 공산주의만 비난할 거라 기대했었다. 하지만 그는 공산주의와 서구를 모두 비난했다. 솔제니친은 당시 대서양 양안의 엘리트들이 매도했던 것에 관해 이야기할 용기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진리였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데 완전히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다면, 진리는 우리를 피해 갑니다. 하지만 진리가 우리를 피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환상은 여전히 남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진리는 좀처럼

유쾌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거의 항상 혹독합니다.”

솔제니친은 당시 미국의 지배적인 세계관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서방이 변함없는 진리에 대한 신념을 가차 없고, 피상적인 법률 만능주의와 바뀌어버렸다고 했다. 그로 인한 가장 비극적이고, 의미심장한 결과는 '시민적 용기'의 부재다. 그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솔제니친은 '과격적이고 무책임한 자유가 끝도 없이 주어졌다'고 말했다. 미덕을 배양하는 수단이든, 즉각적인 만족을 얻는 수단이든 문화가 자유를 이해하는 방식이 그 문화의 안정성을 결정한다. 오스 기니스가 <자유로운 사람들의 자살>에서 썼던 것처럼, 역설적으로 자유의 가장 큰 적은 자유다. 자유의 가장 큰 적은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자유이다. 척 폴슨은 이를 '미덕이 결여된 자유'라 했다.

둘째, 예술의 퇴폐를 지적했다. 여기서 썩어 빠진 대중문화나 소셜 미디어의 유명인사주의, 아니면 몇 년 전 뉴욕 경매에서 4,650만 달러에 팔렸던 노란색 바탕에 파란 줄무늬가 있는 그림인 마크 로스코의 '무제(노랑과 파랑)'가 떠오른다면 잘 생각한 것이다. 이런 부류의

퇴폐는 그 문화의 정신을 드러내고 반영한다.

셋째, 솔제니친은 문화가 붕괴하는 증거로 위대한 정치인의 부재를 들었다. 존경할 만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위대함에 대한 정의가 과거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라. 오늘날 '영웅'이나 '사적 인물'이라고 불리는 사람에 대해 솔제니친이 어떻게 생각할지 당연히 궁금하다. 예를 들어, 질 바이트 여사는 몇 해 전 자신을 여성으로 인지하는 남성 정치인에게 '국제 여성의 날 용기 있는 여성상'을 수여했다.

물론 서구 사회에서 사소한 것들이 승리를 거둔 탓에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혼란스러워진 지 오래다. 폴슨 센터의 빌 브라운 박사가 자주 관찰했던 것처럼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영웅들이 역사를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 시대 영웅들은 영화나 음반을 만들고, 흥행을 기록한다. 솔제니친의 마지막 경고는 1977년 뉴욕시에서 발생했던 정전 사태를 언급했다.

“갑자기 몰려든 미국 시민들이 약탈을 시작하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매끄러운 표면이 매우 얇아진 사회의 시스템은 상당히 불안정하고 병들게 됩니다.”

시민적 용기의 상실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시대와 그리 다르지 않았던 병들었던 시대 문화에 처했던 두 인물, 윌리엄 월버포스와 디트리히 본회퍼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 월버포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문화적, 정신적 회복을 볼 수 있었지만, 본회퍼는 그렇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 누구도 실패한 게 아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가 장래, 월버포스의 시대처럼 될지, 본회퍼의 시대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다.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우리가 할 일은 용기를 가지고, 진리와 미덕,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 문화가 조장하는 나쁜 생각의 희생자들을 돌보는데 헌신하는 것이다. T.S. 엘리엇이 말했듯이 우리는 그저 노력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원문: breakpoint(20240517)



존 스톤스트리트
(척 폴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브레이크포인트 진행, 베스트셀러 작가)



그 끝나지 않는 감동

일본 교회와 신학교에서 보낸 편지

지난 5월 15~16일 열린 러브소나타 '효고'의 감동이 끝나지 않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고, 풍성했다. 한국과 일본 참가자 6,552명(현장 2,635명, 온라인 3,917명), 결신자가 무려 643명이나 됐다. 봉사자와 참가자, 결신자 모두 역대 최대 인원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일본 교회와 신학교에서 러브소나타 '효고'의 끝나지 않는 은혜와 감동을 편지에 담아 보냈다.

/ 편집자 주

일본 목회자가 보낸 편지

'러브소나타'와 복음의 씨앗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러브소나타 '효고'가 은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 러브소나타가 시작되었던 2007년까지만 해도 일본의 작은 목사회만으로 큰 전도 집회가 가능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누리교회라는 멋진 동역자를 통해서 일본을 향한 복음 전도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17년 동안 온누리교회와 일본 협력교회들과 함께 러브소나타를 이어왔습니다.

그동안 모든 시간과 과정, 협력과 관계들이 러브소나타 '효고'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러브소나타 '효고'는 이례적인 일들

이 일어난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기적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과 그 기적의 시간을 함께 달려와 주신 온누리교회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을 사랑한故 하용조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러브소나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교회 목회자가 바뀌면 사역에도 많은 변화가 있기 마련인데, 러브소나타에 대한 사랑을 지속해 주시는 이재훈 위임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일본 선교를 위해 마음을 쏟아 주셔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많은 한국 스태프와 참가자를 만날 때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한 일본 남성은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브소나타를 위해 이 많은 한국 사람이 마

음을 다해 준비하는 모습이 감동입니다. 한국인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한국과 한국인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서 일본 특유의 문화 속에서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는 다짐과 자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러브소나타 행사 당일 조찬회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님이 저에게 일본 청년을 위한 사역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큰 도시를 중심으로 청년들을 위한 러브소나타를 개최하면 어떻지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온누리교회를 떠올리면 '이만큼 선교에 힘을 쏟는 교회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곤경과 방해하는 목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향한 사랑 하나로 달려

가는 온누리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생깁니다.

러브소나타 '효고'가 막을 내렸지만, 끝이 아닙니다. 며칠 전 효고 북부지역에서 '미니 러브소나타를 열어주실 수 없습니까?'라는 의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일본 구석구석 복음이 들어갈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뿌려진 씨앗이 싹을 내고, 뿌리는 더 깊고, 더 넓게 내려집니다. 복음의 씨앗이 일본 전역에 뿌리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본 땅을 걷고 싶습니다. 귀한 영혼들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온누리교회가 보여주시는 영혼을 향한 사랑과 복음 열정을 이어받아 일본에 하나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 키타와 준 목사
(러브소나타 실행위원장, 타몬복음교회)

회복의 드라마

러브소나타 '효고'를 계획하고, 중보기도하며, 섬겨주신 온누리교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러브소나타 '효고'는 일본 교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행사장 밖을 나가 보았습니다. 행사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비가 많이 내린다는 소식에 걱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걱정을 걷어주셨습니다. 비구름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하늘에 무지개가 뽐습니다.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러브소나타 '효고'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러브소나타 집회에서는 더 큰 은혜의 감격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흠은 만석이었고, 찬양과 메시지에 주님의 임재가 총만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643명이라는 엄청난 결신자가 나왔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러브소나타 '효고'의 주제가 '회복'이었습니다. 저도 15년 전 러브소나타 '고베'에 참가

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몇 명의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시작했지만, 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밀바다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두란노서원의 이운구 장로님과 만남을 계기로 2009년 러브소나타 '고베'에 참가했습니다. 그때故 하용조 목사님의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날 이후 같은 마음의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도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일본의 서로 다른 교단과 교파의 목사님들이 친목을 도모

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성령축제에도 함께 참가했었습니다.

러브소나타 '효고'는 끝났지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회복드라마는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이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러브소나타 '효고'에 참가한 젊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중보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세대와 함께 새로운 러브소나타가 전개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 이노우에 신이치 목사
(러브소나타 사무국장, 뽐엘시미즈교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

2009년, 신학교에 갓 입학한 신학생이었던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러브소나타 '고베'입니다. 일본을 사랑하는故 하용조 목사님의 모습과 온기 가득한 메시지를 듣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일본에 오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러브소나타 '고베'의 짧은 메시지를 찬양과 함께 CD에 담아 전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17살에 세

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을 무렵 교회에 젊은 사람이 없어서 고독했습니다. 신앙을 나눌 사람이 없었기에 신앙 서적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중에서故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를 많이 읽었는데, 제가 사역하는 아마가사키교회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훗날 전국에서故 하용조 목사님을 뵈면 꼭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러브소나타 '효고'를 마치고 온누리교회 성

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일본어로 찬양을 불러주었고, 뜨겁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땅의 흔들림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마음을 담은 헌금도 아낌없이 봉헌해주셨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가신 자리에 선물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CGN에도 감사합니다. 아마가사키그리스도교회에서는 CGN으로 전 세계에서 드리는 예배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 찬양을 들을 때마다 큰 감격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표현으

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가사들이 큰 울림을 줍니다. 아마가사키그리스도교회에서는 CGN이 송출하는 예배 영상들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있는 일본 성도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마가사키시에서 45만 명의 구원을 위해서 CGN 예배 영상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온누리교회의 모든 사역이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에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 구와다마나부 목사(아마가사키그리스도교회)

고베개혁신학교에서 보낸 편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저희 작은 신학교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했던 시간이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슬픈 역사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기도로 섬겨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도의 힘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GOD Bless you!

/ 요시다 다카시 교장

국경을 초월한 친밀한 교제

신학교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러브소나타 '효고'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마치 오랜만에 한국을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베개혁신학교에서 온누리교회 권사회와 국경을 초월한 하나님 안에서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고베개혁신학교에 더 많은 사람이 헌신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 요시오카 케이스케 학감

감동과 감사를 회복

일본에 온 지 18년 되었습니다. 더는 새로운 것도 없고, 그날이 그날 같은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설렐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면서 받은 위로와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온누리교회 권사회의 사랑과 수고를 통해 다시금 가슴이 벅찼습니다. 무엇보다 고베개혁신학교 구석구석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하시는 권사님들을 보면서 잃어버렸던 감동



/ 토요다 마사시 학생



서빙고권사회가 지난 5월 14일 고베개혁신학교에 방문해 교직원 및 신학생들과 함께 교제했다.

과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 김소정 특임 강사

만남, 하나님의 큰 선물

일본의 교회는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마음이 소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

누리교회 권사회에서 고베개혁신학교를 방문해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온누리교회 권사회와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이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누리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초월하는 사랑

아내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아픈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브소나타 '효고'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러브소나타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바로 이곳에 참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큰 격려와 힘을 얻었습니다.

/ 마키타 하지메 학생

십자가 은혜와 복음의 기쁨

온누리교회 권사회의 고베개혁신학교 방문과 러브소나타 '효고'를 통해 큰 격려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은혜와 복음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의 큰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며 기쁨을 삶으로 표현하고, 온몸으로 찬양하는 모습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 타요시 아이키 학생

하나님의 사랑 확인

온누리교회와의 교제가 매우 뜻깊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러브소나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일본을 향한 온누리교회의 따뜻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러브소나타 '효고'를 섬겨주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 장성길 특별연구생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 간증

일본을 향한 사랑의 행보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이 지난 5월 15~16일 일본 효고현 고베에서 열린 34번째 러브소나타가 끝나고, 그 후속사업으로 일본 교회(타몬복음교회, 아카시복음교회, 고베동부교회) 세 곳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의 합창과 객원 연주자들의 하모니카 연주, 소프라노 찬양, 테너 찬양, 가야금연주, 클래식기타 연주 등을 하면서 일본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응원했다.

'일본은 선교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선교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실제 일본 교회를 방문했더니 성도가 15~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일본 목사님들은 어떻게 목회하고, 생활하실까?'

걱정되었다. 이재훈 위임목사님이 "일본의 목사님들이 모임을 할 때 회의 장소까지 올 차비가 없으신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장면이 떠오르면서 코끝이 찡했다. 그런데 일본 교회 목사님들의 표정이 정말 선하고, 평화로워보였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목사님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은 일본어 찬양을 준비해 갔다. 일본 교회 성도들에게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의 노력과 애씀이 전달되는 것 같았다. 특히 찬양 '은혜', 'God Bless You'를 하면서 감동과 감화의 눈물을 흘리던 성가사님을 보면서 목이 메어 잠깐이었지

만, 입만 뻥끗하고 소리를 못 냈던 순간도 기억났다. 나중에 들었는데, 성가사님도 눈물 흘리는 단원들을 보면서 덩달아 울었다고 하셨다. 단장님은 기쁨의 눈물로 일본 교회에 헌금을 봉헌했고, 일본 목사님들과 성도들 역시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의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눈가에는 눈물이, 마음에는 감동이 채워지며 모두 영적으로 하나 되었다.

음악에 문외한인 내가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 단원이 된 것도 얼떨떨한데, 첫 해외 선교를 일본 고베로 다녀온 것도 신기하다. 누가 나에게 찬양을 연습하도록 지도해 줄 것이고, 누가 나를 복음 전하는 무리의 일원으로 삼고 초청하겠는가? 누가 일본 선교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했겠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선한 영향력을 가

진 사람들에게 권면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지를 받았기에 가능했다. 내가 결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있었다. 그 덕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

故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세워진 온누리교회 일본 선교가 17년째 이어지는 역사의 현장에서 역할은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서 감사했다. 단장님, 성가사님, 총무님, 파트장님들과 모든 단원에게 감사하다. 일본을 향한 사랑의 행보라는 거룩한 여정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창희 성도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

사회선교본부 창립 10주년을 맞으며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사랑을 받아주는 이웃이 있어서”

‘이웃사랑팀’이 행복한 두 가지 이유

온누리교회 선교 역사는 교회가 창립되기 전인 1984년 10월 한남동 햇불회관에서 12가정이 시작한 성경공부 모임에서 출발한다. 온누리교회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매주 주일 좁은 실내를 벗어나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웃리치를 떠나 낯선 곳에서 예배드렸다. 그 일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워졌다. 성도들이 ‘선교’와 ‘공휴’를 머리로 알기 전에 몸이 먼저 ‘떠남’을 배우고, 도시의 그늘진 곳과 농어촌에 사는 이웃들의 실상을 보며 ‘섬김과 공휴’를 배웠다. 해마다 수천 명의 성인과 청년, 청소년들이 국내외 이웃리치를 떠나는 전통이 그때 만들어진 선배들의 DNA가 흘러 내려왔기 때문일 것이다.

故 하용조 목사는 설교에서 “사도행전적 교회는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러 계속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자주 언급했다. 성도들의 삶 자체를 ‘떠남’에서 시작하도록 하고, ‘사도행전적 교회의 완성’을 교회의 비전으로 선포했다. 온누리교회는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며 세워졌다.

故 하용조 목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지상위임령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대계명을 교회가 나아가야 할 두 가지 실천 사명으로 삼았다. 이웃의 가난과 기아, 고통과 아픔에 구체적인 사랑을 전하는 일을 모든 성도가 실천하기를 호소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디아코니아, 케리그마, 코이노니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 4:18-19).

〈누가복음〉 말씀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일이 있다. 첫째, 디아코니아(diakoneo)다. 구제(행 6:1), 봉사(행 21:9), 섬김(계 2:19)을 가진 자(롬 11:13)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다. 둘째, 케리그마(kerygma)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다. 셋째, 코이노니아(koinonia)다. 성도가 세상과 깊은 교제와 형제애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다. 디아코니아, 케리그마, 코이노니아를 갖춘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온누리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표



방한다. 온누리교회가 복음 선포와 가르침, 병 들고 가난한 이웃을 위하고, 치유하고,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며 천국을 경험하는 사명을 갖는다면,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길 것이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구름처럼 모이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2011년 10월 27일, 온누리교회 2기 사역이 시작됐다.故 하용조 목사의 뒤를 이어 이재훈 목사가 위임되었다. 새롭게 출발한 2기 사역의 성공을 위해 당회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도행전적 교회, 선교, 목회, 말씀과 순종, 공동체 정신 등 하나님이 온누리교회에게 주신 ‘기본정신’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 더불어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시도로 성도들의 정체성, 원하는 사역 방향, 우선 추진 사역, 미래에 대한 비전, 가져가야 할 가치관 등을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게 진행했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에서故 하용조 목사를 회상하며 ‘예수바보행전’을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다. 그러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살피도록 당부했다.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2014년 1월, 온누리교회는 사회선교본부를 신설하면서 물질지상주의, 디지털시대, 팬데믹 시대, 포스트모더니즘시대, 탈권위주의, 저출산, 초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그늘에 있는 약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사회선교의 영역이 구제와 공휴, 봉사에 묶이지 않고 더 나아가 생명과 인권, 약물과 부채, 환경과 자연재해,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사회선교본부로 조직이 확대되면서

농어촌사역, 도시미자립교회, 이주민사역, 다문화사역, 탈북민사역 등 27개 전문사역팀이 생겼다. 사랑을 나누는 일이 더 바빠졌다. 이 사역들은 서울역, 남대문 쪽방촌, 교도소, 그리고 이름 없는 도서벽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웃사랑팀이 찾아가는 장소도 바로 그곳이다.

이웃사랑팀은 매월 마지막 주일에 사역한다. 온누리교회의 가까운 이웃인 서빙고동, 동빙고동, 보광동, 청파동 등지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안부를 묻고, 생필품과 반찬을 전달하고, 식사 교제를 한다. 매월 구제봉사 주일이 되면 봉사자들이 조를 짜서 자신이 섬기는 어르신들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난다. 온누리교회 깃발이 흔들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긴다. 바로 그곳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다.

**이웃사랑팀이 만난,
이웃사랑팀을 만난 사람들**

이웃사랑팀의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부모가 이혼해서 90세 된 할머니와 사는 희망이(가명)는 고3 학생이었다. 비좁은 쪽방에서 할머니와 둘이 지내느라 누울 자리가 없어서 간신히 머리만 눕히고 지냈다. 월세도 내야 하고, 할머니 약값도 벌어야 하는데 소식이 끊긴 아버지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고생이 더 많았다. 희망이는 생활비가 없어서 학교가 끝나면 부랴부랴 고속터미널에 있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곤 했다.

이웃사랑팀이 희망이와 할머니를 매월 찾아가다. 처음에는 주일만 되면 찾아오는 이웃사랑팀을 귀찮아하는 눈치였다. 그래도 할머니가 이웃사랑팀의 방문을 좋아해서서 곁에서 기도도 해 보고, 말씀도 따라 읽었다. 참 착한 손주였다.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듯 성령의 가

랑비에 희망이 영혼의 옷이 젖어 들었다. 어느 날 희망이가 세례를 받겠다고 청했다. 할머니도 손주 따라 세례를 받겠다고 하셨다. 이듬해 희망이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 대학부에 등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

손완식 어르신은 가족이 아무도 없는 독거노인이다. 냉방이 안되는 것도 모자라 찬바람이 들이치는 작은 방 한 칸에 살았다. 이웃사랑팀이 보일러를 놓아 드리겠다 제안했는데, 집주인이 “보일러를 수리하면 재건축 때 안 나갈 테니 안 된다”며 거절했다. 그렇게 추운 겨울을 나던 어르신이 몸살 기운으로 도저히 식사를 할 수가 없었다. 그때 이웃사랑팀 브릿지 33+공동체 청년들이 생각났다고 한다. 어르신이 청년들에게 “오늘이 봉사하는 날은 아니지만 한 번만 와 줄 수 있냐”고 연락하셨다. 청년들이 곧바로 어르신을 찾아뵙고 죽을 썬 드리고, 과일을 대접했다. 세 시간 동안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주일에 또 올게요”라고 인사하며 헤어졌다. 그 일이 손완식 어르신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 주일에 봉사자들이 어르신 댁을 방문했을 때 이미 싸늘하게 식어있었다. 어르신이 생애 마지막 순간 보고 싶은 봉사자들과 교제하셨고, 봉사자들은 어르신을 천국으로 인도한 마지막 잔치를 베풀어 드린 천사들이었다.

이웃사랑팀에서 해마다 시행하는 사르밧프로젝트에 대한 감사 인사도 많이 받는다. “사르밧프로젝트에서 보내주신 쌀로 지은 밥이 제일 맛있었다”는 인사를 보내온 탈북청소년 기독교 대안학교인 ‘다음학교’의 인사가 기억에 남는다.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사랑을 감사로 받아주는 이웃이 있어서 이웃사랑팀의 사역은 참 행복하다.

이웃사랑팀은 기본적으로 온누리교회 근처 동네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에 이 사역이 흘러가기를 바란다. 공동체별로 공동체가 속한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희망한다. 각 공동체가 이웃사랑팀의 시스템을 그대로 접목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지경을 넓히기를 바란다. 더불어 더 많은 청년과 중고등학생들이 이웃사랑팀의 봉사자로 활동했으면 좋겠다.

문의: 010-8949-4019, 010-9802-2395

* 이 글은 박순길 장로님(이웃사랑팀 대표장로)의 글을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박순식 팀장
(이웃사랑팀)

맛있는 말씀 해설

“내게 구하여라.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왕상 3:5)

하나님은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마리의 짐승을 번제물로 드린 후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질문하셨다.

“내게 구하여라.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왕상 3:5).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정성이 가뭇해 서였을까? 하나님께 진심과 정성으로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일까? 그러나 앞뒤 문맥을 읽으면 그런 뜻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것은 그를 시험해서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내려 하신 것 같다.

하나님의 이 질문이 등장하는 말씀의 배경은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심히 창대하게 된 때다(대하 1:1). 당시 최강국인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그의 딸을 왕비로 삼아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였다.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을 뿐 아니라 이방 여인인 바로의 딸을 왕비로 맞이

했을까? 이 심각한 문제 외에도 그가 시작한 거대한 토목공사의 우선순위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궁전,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고 있었는데(왕상 3:1), 기록된 순서가 자신의 궁전 건축이 성전 건축보다 우선 되었음을 보여준다. 성전은 7년 걸려 완공하지만, 왕궁 건축에는 13년 걸렸다. 하나님이 바로 그 솔로몬에게 “내게 구하여라.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라고 질문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것은 1천 번제의 보상이 아니다. 왕위가 공고해진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1천 번제를 드렸는지를 드러내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신 것은 그가 1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다. ‘재판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에서도 이 질문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이나, 원수들의 목숨을 구하지 않았음을 칭찬하셨다. 하나님의 질문이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 구하는지, 왕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구하는지를 드러내고자 한 질문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만약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던졌던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어떤 대답을 할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랴?”고 질문한다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말씀드릴 것이다. 솔로몬의 간절한 소망은 왕으로서 지혜롭게 재판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왕 역할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중심을 기뻐하셨다. 아마 하나님은 솔로몬이 다른 것을 소망했을지라도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기뻐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명에 합당한 대답을 했기에 그 시대의 풍요가 있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로 인해 우상숭배에 빠지는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되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그때 응답해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우리의 고백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완벽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에 마음이 끌려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마음 중심에 있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소망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구하여라.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고 질문하실 수 있다. 이 질문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은일 장로
(성광진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주님의 날을 고대하는 삶

6월 10~16일

〈베드로전서〉 5:8~14,
〈베드로후서〉 1:1~3:18

지 묵상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므로 성도는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형제들과 같이 깨어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베드로는 하나님 은혜에 굳게 서기를 당부하며 편지를 마무리한다.

묵상포인트 2: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성도 중에 재림을 의심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이에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해 재림에 대한 확신을 심어줌과 더불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신앙 성장을 이

묵상포인트 1:

고난은 잠깐이고, 고난을 통과한 이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영원하다. 우리는 이를 기억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

루도록 권면한다. 자신의 죽음(순교)이 가까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교훈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성도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삶에 더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 베드로는 자기 육체의 남은 시간 동안 성도들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일깨우며, 특히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 것을 권면한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주님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멸망을 재촉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킬 것이나,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고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것이다. 연약한 영혼들을 속임수로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를 따르는 이들은 반드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묵상포인트 3: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심판의 때가 더디게 보이는 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묵상하자.

▶말세에는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심판과 멸망 당할 날까지 이 세상은 보존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이것은 주님이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

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주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 가야 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마귀는 시험과 유혹으로 성도를 넘어뜨리려 한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고난을 이길 힘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기를 다짐하자. ▶여덟 가지 신성한 성품(벤후 1:5~7) 중에서 내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 부분이 성숙해지도록 기도하며 힘쓰자. ▶주님을 더 깊이 알아 가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경건의 습관을 생각하고 실천하자. ▶거짓 교사와 그들을 따른 자들의 결말은 영원한 형벌이다. 성경을 기준으로 거짓을 분별하고 단호히 끊어 내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다.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켜 심판의 날이 상급의 날이 되도록 준비하자. ▶주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다. 심판을 유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경험한 사랑과 은혜를 주변 비신자들에게 전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사촌동생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촌동생(전*아 자매, 55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촌동생은 지난해 10월 말 뜻하지 않게 악성피부암(악성흑색종) 진단을 받고, 올해 1월 수술하고, 4월까지 30회 방사선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 방사선치료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 고통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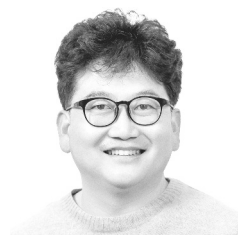
지난 5월,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petCT 및 복부CT를 받았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암세포가 생겼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많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제를 지난 5월 29일부터 투약하고 있는데 3주 간격으로 2년 동안 치료받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악성흑색종이 한 달 만에 다시 생기는 것으로 봤을 때 매우 빠르게 퍼지는 암으로 생각돼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통 없이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는 절망적인 말까지 하는 정도입니다. 사촌동생이 절망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 긍휼을 경험하도록 기도해주시고, 항암제 치료를 받을 때 암이 완전히 제거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항암제를 투약하는 동안 부작용이 없도록 기도해주시고, 자매의 아버지가 구원받고, 가족들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건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고.

/ 이윤재 목사(부천온누리교회)

목사와 함께 떠나는 '섬교회 나들이'

교회 이름은 다르지만, 시작점은 같다!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육지도를 아는가? 통영에서 한 시간 남짓 배를 타고 가면 만날 수 있는 섬이다. '섬마을' 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여유로움이나 고즈넉한 분위기 보다는 분주하고,

밝고, 씩씩한 느낌이 가득한 섬이다. 육지도는 통영시 육지면에 속해 있다. 육지면에는 우도, 연화도, 두미도 등 유인도 10곳과 무인도 45여 곳 등 부속섬 55여 곳 있는데, 중심섬이 육지도다.

육지도는 조선 태종의 공도정책으로 인해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다. 다면 삼도수군 통제영 관할 해안 초계지(전투를 준비해서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일)로 병사 100명이 주둔해 해안 초계와 조정에 진상할 사슴을 방목했을 뿐이다. 하지만 1800년대 후반 들 어서면서 극심한 기근과 가난으로 더는 육지에서 삶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을 돌파하고자 불법이었지만 일부 사람들이 나룻배를 만들어 노를 저어 육지도에 정착을 시작했다. 뜻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고, 정식으로 육지도에 사람들이

머물며 생활할 방법을 마련했다. 머리를 맞대고 입도가 가능하도록 조정을 설득할만한 여러 내용(세금, 진상 등)을 마련해서 입궁했다. 마침내 고종의 윤허를 얻었고, 이로 인해 1888년 정식으로 육지도 입주 희망자를 모집했다. 본격적인 육지도 개척이 시작된 것이다. 육지도는 이 해를 '육지도 개척 원년'으로 정하고, 100년이 되는 1988년 '100주년 기념행사'를 했다. 2023년에는 육지도 개척 135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한때 2만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살았지만, 지금은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산다. 육지도는 주어진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험난한 미지의 바다를 건너서라도 돌과구를 마련하려는 사람들의 도전정신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찾으려는 선한 사람들의 마음과 실천이 만나 얻어낸 귀한 땅이다.

육지도는 다른 섬에 비해 왕래하기가 편하다. 통영함을 비롯한 삼덕항, 중화항에서 각각 육지도행 배편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이다. 한정된 시간에 쫓기며 섬을 돌아보기보다 자기 시간에 맞춰 방문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육지도는 고등어와 고구마가 유명하다. 고등어는 성질이 급해 잡히는 즉시 죽어버려 횡감으로 쓰기 어려운데, 육지도는 고등어의 산지라고 할 수 있어서 신선한 고등어회를

맛볼 수 있다. 이뿐일까? 육지도 고구마는 비탈진 황토밭에서 넘쳐나는 별과 바닷바람을 맘껏 누리며 자랐다.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하는 그 어떤 음식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다. 이외에도 걷는 일을 즐기며 전국을 누비는 여행자들을 위해 잘 마련된 둘레길, 비밀상적 시간과 광경을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모노레일과 출렁다리도 육지도행 배편을 예약하도록 손짓한다.

이토록 매력적인 육지도에는 4개 교회가 자리 잡고 십자가를 높이 세웠다. 육지도 교회이야기는 개척 이주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함께했다. 개척이주민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복음이 바다 건너 척박한 삶의 터전을 일구기 시작한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건넸을 것이다. 하나님은 육지도 주민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들의 소식이 부산에 거주하는 호주선교사 아담슨(손안로)에게 전해졌다. 보통 선교사들은 지역에 거점을 만들어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 더 낮은 곳, 더 깊은 곳으로 가기 마련이기에 도서 지역 선교가 사역의 후순위가 되곤 했는데, 육지도는 달랐다. 아담슨 선교사는 넓은 통영을 뒤로하고 배를 빌려 육지도를 먼저 찾았다.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모으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조직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

육지도에 뿌리내리도록 힘썼다. 육지도 주민들의 도전정신과 신앙의 열심, 그리고 선교사의 헌신과 수고 덕분에 1902년 박명출 외 다섯 가정이 논골이라는 곳에 함께 모여 '동항리교회'를 세웠다. 통영과 거제 보다 육지도에 먼저 교회가 설립됐다.

그런데 육지도 첫 교회인 동항리교회의 흔적이나 기념할만한 그 어떤 것도 남아 있지 않다. 다만 근래 한 개인이 육지도 교회 역사의 시작점을 기념하기 위해 동항리교회 터라고 생각되는 곳에 작은 기도처소를 마련해 놓은 게 그나마 위안이다.

동항리교회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견디면서 육지도의 영적 중심지 역할을 했다. 그러나 교회 분열을 넘지 못했다. 육지제일교회와 육지제이교회로 나뉘었다가 다시 합쳐지고, 또다시 나뉘어 육지제일교회와 육지교회 이름으로 오늘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교회 이름은 다르지만, 시작점을 같다. 통영, 거제의 첫 교회인 '동항리교회'가 보여준 아름다운 열정과 헌신 이야기를 정리하고, 교회 차원에서 기념할만한 공간과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동항리교회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아직 더위가 우리를 괴롭히기 전에 육지도를 여행하면서 그곳의 교회들을 방문하자. 교회 방문이야말로 가장 큰 기도이자 후원이라 믿는다.

두란노 신간

전도에 관한 지혜 그리고 열정



〈세상을 바꾼 복음전도〉
마이클 그린 저 | 두란노 | 18,000원

다. 복음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사명이자 축복이다.

책 〈세상을 바꾼 복음전도〉에서는 복음 전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 보면서 미래 방향을 안내한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앞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 전하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안다. 이 책을 읽으면 역사에 등장하는 복음 전도자들의 전도에 관한 지혜와 열정을 배울 수 있다.

오늘의 힘(Hymn)
'찬송가, 찬가'

세상에 예수 전하는 통로

'창문'
이동희 곡

이 저마다 가진 아픔과 슬픔, 공허함을 모른 채하면 안 된다. 슬픔 속에 있는 한 사람, 어둠 속에 있는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추도록 창문 역할을 해야 한다. 바로 그때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찬양 '창문'은 2001년 발매된 한국컨티넨탈싱어즈 앨범이 원곡이다. 지난 5월 24일 찬양사역자 이동희가 리메이크 앨범을 발표했다. QR 코드, 유튜브, 멜론, 지니, 벅스 등 음악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삶을 통해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는 성도에게 이 찬양을 추천한다.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가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기를 소망한다.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

우리는 회복의 세대!

지난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이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1987년부터 매년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를 선정하고, 발표한다. 대륙별로 돌아가며 나라를 정해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 행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렸다. 주제는 'Our Land, Our Future, We are GenerationRestoration'이다. '우리의 대지, 우리의 미래, 우리는 복원(회복)의 세대'라는 의미다. 유엔환경계획 홈페이지에 세계 환경의 날 주제를 발표하며 이런 문장을 남겼다.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숲을 기르고, 수원(물자원)을 회복시키고, 토양을 되살릴 수는 있다. 우리는 땅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존재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가 크리스천들에게 도전해 준다.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 질서 회복의 주체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 모두 '회복의 세대'가 되어서 환경을 되살리고,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했으면 좋겠다.



사진은 2024 온누리교회 장로수련회 '소풍'

2024 장로수련회 '소풍'

온누리교회 장로 및 교역자 등 530여 명 참석

2024 온누리장로수련회(이하 '장로수련회')가 지난 6월 7~8일 강원도 홍천군 소노벨 비발디파크에서 '소풍'을 주제로 열렸다. 온누리교회 장로(사역, 시무, 명예, 협동), 권사, 교역자 등 530여 명이 참석했다. 2024 장로수련회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소풍을 떠나듯 쉽고 교제, 소통과 화합을 누리는 장(場)이었다. 개회예배, 손찬기 장로 대표기도, 장로합창단 특선, 이재훈 위임목

사 설교, 이인용 장로(당회서기) 환영 인사, 이석일 장로(장로수련회 준비위원장) 주제 설명, CGN 소개, 이의용 교수(교회문화연구소장) 특강, 합심기도회 등이 이어졌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개회예배에서 '요나단 리더십'을 주제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참된 리더십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확신을 가지며, 사람의 마음을 감화력으로 움직이는 능력"이

라며 "온누리교회 모든 장로님들이 참된 리더십인 요나단의 리더십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이인용 장로는 "복음 전함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온누리교회 장로님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고, 이석일 장로는 "이번 온누리장로수련회를 계기로 선배 장로님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깊은 소통을 나누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참가자 모집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22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새골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1주차와 2주차는 토요일만, 3주차와 4주차는 1박 2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6월 21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부부당 35만 원, 자녀 1명당 5만 원이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는 행복한 부부,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하나님의 은혜', '피플퍼즐', '자녀교육'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9022-5228

263기 결혼예비학교 참가자 모집

263기 결혼예비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5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매주 금요일마다 2개씩 강의를 업로드되고, 게시일로부터 10일 동안 수강할 수 있다. PDF 파일로 강의안도 제공한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한다. 회비는 15만 원.

263기 결혼예비학교에서는 '결혼의 성경적 가르침', '너와 나, 다름의 축복', '신혼, 재정적 첫걸음'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2-2078-3263

제이흠·선한울타리 '공동세미나'

6월 16일 오후 5시 30분 온누리청소년문화센터

사회선교본부 제이흠입양위탁팀과 선한울타리사역팀이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6월 16일(일) 오후 5시 30분 온누리청소년문화센터 3층 소극장에서 열린다. 공동세미나는 배우 신애라 집사가 1부를 진행하고, 2부에서는 제이흠 입양위탁팀과 선한울타리사역팀이 사역 소개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제이흠입양위탁팀이 우리나라 입양위탁 현황을 설명하고, 입양위탁 조건 및 절차 등을 알려준다. 선한울타리사역팀에서는 한국 보육원 현황과 자립 준비 청년 실태 등과 보육원아동결연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해 설명한다.

문의: 02-3215-3434

경배와찬양학교 및 7000학교 참가자 모집

경배와찬양학교 및 7000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7월 29일(월)부터 8월 3일(토)까지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60주년 기념채플관에서 진행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를 주제로 하스데반 선교사, 경배와 찬양 국제사역팀, 하신주 선교사가 인도한다.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경배와찬양학교, 8월 1

일부터 3일까지는 어린이를 위한 경배와찬양학교가 열린다. 이 기간에는 미래세대 및 어린이를 위한 경배와찬양학교로 초점을 맞춰 모든 세대가 함께 동참한다.

참가신청은 경배와찬양 홈페이지(allenationen.org)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다음 이메일(7000school@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796-9700

NGO 더멋진세상, 르완다 나루부예 마을 식수 공급 시스템 구축

NGO 더멋진세상이 아프리카 르완다 응호망과 나루부예 3개 마을 주민들(2192명, 518가구)을 위해 식수 공급 시스템을 구축했다.

나루부예 마을 주민들은 접근 가능한 식수원이 없어서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GO 더멋진세상은 지질 조사, 마을과의 거리,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서 지하수 관정을 공급했다. 수질 검사로 안전성도 확보했다. 지방 정부와 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식수 공급 시스템 구축으로 나루부예 마을과 인근 마을 주민을 포함한 5천 명 이상의 주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게 됐다.

'홀리스틱 AI' (Holistic AI) 제작 참여해야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 교회 220여 개, 참가자 860여 명

2024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이하 'FMC24')가 지난 6월 3~4일 'AI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미디어 전략은?'을 주제로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렸다. 이틀 동안 교회 220여 개, 목회자 및 신학생, 성도 860명(3일 434명, 4일 426명)이 참석했다.

FMC24 첫째 날(3일) 박은지 교수(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가 사회를 보고, 이재훈 위임목사, 최진호 교수(미국 예모리대학교), 김도균 대표(Cloudflare 한국지사)가 강의했다. 기독OTT '풍당' 소개 및 풍당 2.0 발표, AI 활용 강의, 엑스포 참여 업체 PT 및 이벤트 등도 이어졌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교회가 AI 세상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소통하고,

AI 세상에 거룩한 콘텐츠를 유통하는 '홀리스틱 AI(Holistic AI)' 제작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호 교수는 "다음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교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선의 AI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도균 대표는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술을 이해하고, 잘 다스리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는 데 AI를 유용한 도구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FMC24 둘째 날(4일)에는 이재호 대표(미국 리빙사운드), 조명연 대표(CM MEDIA GROUP), CGN 제작기술실, CGN AI 리서치팀, CGN 커뮤니케이션실에서 선택강의를 했다.

여름 아웃리치 위한 <최고의 행복> 집중 강의

6월 18일 오후 8시 온누리청소년문화센터 소극장

전도콜센터가 올 여름 아웃리치를 위한 전도지 <최고의 행복> 집중 강의를 한다. 6월 18일(화) 오후 8시 온누리청소년문화센터 3층 소극장에서 진행된다.

<최고의 행복> 집중 강의에서는 장경문 장로(양천공동체)가 강의한다. 참가대상은 각 공동체 대표장로, 총무, 전도사역자 및 아웃리치 관계

자다. 일반 성도들은 선착순 신청하면 수강할 수 있다. 회비는 없다. 참가신청은 구글폼(QR 참고)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각 공동체에 전달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전도콜센터에 개별 신청해도 된다(02-3215-3377).

문의: 010-5219-8707

사랑부 가정을 위한 '행복한 부부학교'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진새골 사랑의 집

장애인사역본부에서 사랑부 가정을 위한 '행복한 부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다. 6월 15일(토) 오후 2시 30분부터 16일(일) 정오까지 진새골 사랑의 집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사랑부 각 부서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24가정을 모집한다. 회비는 가정 당 5만 원.

사랑부 가정을 위한 '행복한 부부학교'에서는 사랑부 가정의 부부관계 회복과 자연 속에서 쉽고 힐링을 누리도록 도와준다. '부부대화, 남녀차이', '하나님 가정의 영성', '언약 결혼식'을 주제로 강의와 자녀를 위한 미술 프로그램 등이 이어진다.

문의: 010-8567-1808

FA 23기 단기선교사 모집

FA 23기 단기선교사를 모집한다. 6월 19일(수)까지 QR 코드로 참가신청하고, 이메일(fa@tim.or.kr)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조건은 온누리교회 등록 1년 이상,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공동체 6개월 이상 소속, 35세 이하 미혼(1989년 6월 생 이하), 해외 거주 결정사유가 없는 세례교인이다.

구비서류는 FA선교사지원서 1부,

추천서 3부(온누리교회 목회자, 공동체 리더, 지인),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검진서다. 'FA선교사지원서'와 '추천서'는 두란노국제선교회(TIM) 홈페이지(www.tim.or.kr)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문의: 070-4464-8105

/ 김다애 기자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 신앙에세이



/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 한강공동체)

사회선교본부 10주년,
그 의미와 사명

온누리교회는 창립 때부터 구제금융 사역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 왔다. 구제금융 사역이 10년 전 ‘사회선교본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다.

사회선교본부는 지난 10년 동안 하용조 목사님이 “교회는 사회에 헌신해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노력해 왔다. 또한 이재훈 위임목사님이 “세상 속에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요, 참된 교회”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교회는 그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에서 사랑과 공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사회선교본부가 지향하는 목표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삶의 환경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졌지만 아이러니하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노년층은 노년층대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상황은 교회가 그만

큼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선교본부는 온누리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세상 속의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않으려고 한다. 사회선교본부는 온누리교회가 성육신적 교회, 사회참여적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헌신을 다할 것이다. 사회선교본부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중보기도자, 자원봉사자, 은사 헌신자, 재정 후원자 같은 헌신이 필요하다. 세상을 섬기는 일은 사회선교본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순종하는 헌신된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제 사회선교본부는 새로운 10년을 향해 달려가고자 한다. 홀로 인간답게 살기 어려운 하나님의 특별 관심 대상자들에게 찾아갈 것이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역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한다.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 ‘부채탈출119’ 상담자의 고백



/ 오종규 팀장(경제정의 재정세미나팀)

사회적 약자의
필요에 민감하게!

얼마 전 한눈에 봐도 왜소하고 약해 보이는 중년의 여자가 상담자 방문했다. 그분은 선천적 척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60세가 다 되도록 홀로 살면서 화장품 외판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동안 빛과 이자를 근근이 갚아 왔는데, 이제는 나이까지 많아져 더는 무거운 화장품을 들고 파는 일을 못 할 것 같아 앞으로 불어날 부채를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최선의 해결방법으로 개인파산을 안내하며 앞으로 상당 기간 카드사용이나 대출이 힘들 거라고 말해 주었다. 그런데 그녀가 몇 번을 망설이더니 “법무사님, 저어... 백화점에서... 가방 하나 사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속으로 ‘명품 가방을 산다는 것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지금까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 본 적이 없는데, 얼마 전 백화점에서 20만 원 하는 가방을 눈여겨 둔 게 있는데 그걸 꼭 사고 싶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위해 법적 절차가 개시되면 더는 신용카드를 못 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자신의 수입만으로 20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 일은 엄두도 못 내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렵사리 속내를 털어놓은 것이다. 그 말을 마친 그녀는 평생 장애의 몸으로 힘

들게 일했음에도 원하는 가방 하나 사지 못하는 자신의 삶이 가여웠는지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눈가에 자글거리는 주름, 척추 장애로 왜소한 모습, 흘쩍이는 눈물이 그동안 그녀가 살아왔을 인생의 스산함과 서러움을 말해 주는 것 같아 나도 같이 울고 말았다. 그리고 가방 문제는 해결해 드리겠다며 위로해 주었다.

예수님은 일찍부터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성경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 (눅 4:18)”,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 (잠 19:17)”라고 말씀한다. 복음은 부족하고 가난한 자를 끌어안으며 살라고 명령한다. 그리스도의 공의가 이 땅에 펼쳐져야 한다.

오늘날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쳐서는 안 된다. 사회선교는 사회적 약자의 실제적 필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사회선교본부 경제정의팀의 부채탈출 119 프로그램은 구제사역의 범주를 넘어 그리스도의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경제적 약자들을 찾아가 관계 맺고, 그들의 필요를 공감하고, 눈물을 닦아 주고, 손을 잡아주며, 위로하는 사역이다. 문의: 02-3215-3434

■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서밌음 성도(하나공동체)

두 번의 일대일제자양육

나와 아내는 일대일제자양육 재수생이다. 2011년 중국 장춘온누리교회에서 아내를 만났다. 주님을 향한 자매의 순수함과 긍정 에너지에 끌려 교제를 시작했고, 2014년 결혼했다. 그즈음 우리는 각기 다른 믿음의 선배에게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았다. 중국에서의 첫 번째 일대일제자양육은 담고 싶은 신앙의 선배를 얻는 귀중한 경험이었다.

2017년 중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했다. 양재온누리교회는 우리 부부를 ‘새신자’로 환영해주었다. 행정 착오로 교적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이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북한선교의 뜻을 품고 중국을 향했듯, 실례는 마음으로 북한과 남한 지체가 함께 예배하는 하나공동체를 찾아가 새신자 교육을 받았다. 우리 부부는 중국보다 풍성한 한국 온누리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을 만끽하며 JDS(예수제자학교)도 수료했다.

어느 순간, 탈북민 형제자매와 은혜를 나누기 위해 일대일제자양육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런데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을 수강하려면 동반자반을 수료해야 하는데, 수료하지 않은 상태로 기록되어 있어서 지원이 불가능했다. 결국 우리 부부는 2023년 각각 하나공동체와 JDS에서 맺은 인연들에게 다시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았다. 나는 하나공동체 순장으로 섬기는 박현규 집사님께 양육을 받았다. 중국에서의 일대일제자양육이 ‘따뜻’이었다면, 이번 양육은 ‘앗 뜨거워’였다. 분명 나와 같은 내향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양육자님의 모습 그 자체가 감동이었다.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바뀔 수 없다며 양육 교육에 색안경을 끼고 있던 아내는 JDS에서 일대일제자양육을 받고 다소 변화를 겪었다.

검과 의심이 많은 우리 부부가 두 번의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 담대해졌다. 최소한 받은 은혜만큼은 흘려보내야 한다는 양심(?)도 생겼다. 영육의 허기를 고루 채워주시고, 기도와 말씀을 이루는 양 날개의 중요성 등을 일깨워 주신 양육자님의 정성과 중보기도 헌신을 다룬 지체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소망한다.

■ 이주민선교학교 수료 간증



/ 이승훈 성도(인천온누리교회)

이주민을 향한 이해와 통찰

나는 인천온누리교회에서 2개월에 한 번 이주민 진료를 하는 의료선교팀 팀장을 맡고 있다. 의료선교팀장의 임기는 2년인데, 하나님 이 연임에 대한 인도하심을 말씀하셔서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다. 내가 하나님께 앞으로 2년 더 달릴 수 있는 레마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은 내게 이주민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그 사랑에 지식과 총명(그들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더해서 그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라는 의미로 다가왔다.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 고민하던 차에 이주민선교학교 광고를 들었다. 그 순간 이 말씀을 이루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주민선교학교 20기에 지원했다.

이주민선교학교 첫 번째 강의를 들려주신 전홍렬 선교사님이 다문화 부부이기도 하시고, 정말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동적이었다. 그중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도 다문화 부부였고, 이들이 훗날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 받았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았다. 이 내용은 이주민들을 향한 내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는 말씀이었다. 이주민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단지 구원받는 수준을 넘어서 내가 섬기는 이주민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처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로 기도가 확장되었다.

세 번째 강사였던 김연경 선교사님은 강의 서두에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완벽한 카이로스 시간에 지금 여기 와 계신 줄 믿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주민선교학교로 인도해 주신 것이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주민선교학교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한 달여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셨던 이해와 통찰을 모두 이룰 수는 없겠지만, 분명 이주민들을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더욱 입을 크게 열어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

결혼

6월 15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홀
 정평환, 이소현의 아들 정태진(온누리교회)
 정인식, 오인민(광주남부교회)의 딸 정소리(온누리교회)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웅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김다애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봉사
 자격: 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배식봉사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 복지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리
 일시: 평일 10~13시(점심식사 제공)
 문의: 문소연 사회복지사(070-4340-2542)

재정

온누리교회의 헌금 매뉴에서 모바일헌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헌금온라인 안내
 십일조헌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02-793-2997, 010-4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등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필수)

소천

5/31(금) 서초D 우주회 선교사 모친상 고 이성례
6/1(토) 가정사역 주혜성 성도 부친상, 이광섭 성도 빙부상 고 주치연
6/1(토) 이춘 정의진 성도 시모상 고 권윤지
6/1(토) 김포 김익섭 집사 부친상 고 김두만
6/2(주일) 성북 안명희 성도 모친상, 이완구 성도 빙모상 고 정말순
6/2(주일) 양천 권성욱 집사 모친상, 송태호 집사 빙모상 고 남궁희
6/2(주일) 양재 김성순 성도 부친상 고 김상길
6/2(주일) 분당B 박형선 성도 부친상 고 박재규
6/3(월) 서초B 황재익 장로 모친상 고 이홍자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라운드



CGN TV

CGN 유튜브, 팟캐스트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20분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CGN 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



2024 상반기 주요 편수 소개



74편 유기성 목사



76편 장재기 목사



87편 김성모 목사



95편 이인호 목사